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기업 몰리는 지방 만든다

도, 7대 전략 21개 실행과제 추진
울진 청정수소클러스터 구축 속도
내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기업 전력거래 플랫폼 경쟁력 ↑
풍력·수상태양광 등 보급 확대
동해 해저전력망·원전 생태 조성
문무대양광연구소 등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친화 정책 지속 추진

경북도는 글로벌 무탄소경제로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에 7대 전략사업과 21개 실행과제 추진을 목표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은 지난해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전력 자립률 215.6%로 17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94.7 TWh로 전국의 16.1%, 발전설비용량은 전국의 12%에 해당하는 17.3GW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청정수소 생산 및 보급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원전연계 100MW급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총사업비 7000억원으로 동해안권 송전제약을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원전수소 산업혁신 R&D 기반도 조성한다. 울진 국가산단 내 위치하고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저장,



경북도가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 7대 전략사업과 21개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활용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평가를 위한 종합 실증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울진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1918억원의 사업비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 분산에너지 확산

올 6월 분산에너지활용 특별법이 시행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내년 6월 지정, 운영된다.

경북도는 원전지역 송전제약 PPA 모델, 산업단지 RE100공급 모델,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으로 '경북형 분산 에너지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기업 전력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 공모에 영양, 봉화가 선정돼 설비용량 1.5GW,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양수 발전소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는 융복합단지 관리와 경북 에너지정책의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매진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0MW 이상)를 개발해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7개 밤에 수상태양광 635MW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전 연계한 저렴한 수소를 지역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총 1000km에 이르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고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규모 민자사업인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펀드와 재정을 합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안 해저전력망 구축은 총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동해안 지역의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송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울진 원자력 전력을 영덕, 포항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동해안 해저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 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경북에 13기가 운영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24.65GW 중 11.4GW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로서 원자력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인프라 확대와 산업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한다. 지난해 3월 경주와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올 6월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경주SMR 국가산단 조성도 예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단, 주거단지에 저렴한 전기, 열, 수소 등을 공급해 CF100(탄소배출제로 100%)을 실현하고 아울러 SMR 국내 독자모델의 실증 1호기 유치 추진으로 SMR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차세대원자로 기반 조성

△문무대양광연구소 설립을 조기

에 완료 △용융원자로(MSR)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총사업비 6500억원 규모로 문무대양광연구소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SMR제작지원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7월 SMR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7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로 기업지원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향만 구축

정부의 '동해심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생산플랜트 구축은 총 5000억원 규모로 영일만항 일원에 가스와 원유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함께 저장탱크와 수분제거 시설 등을 구축한다.

다음은 △탄소중립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3조원 규모의 수소복합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인수 저장시설을 만들고 출하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배후부지에 해상풍력 지원항만도 조성해 동해안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유지보수 항만시설과 기업집적화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해시 시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 및 에너지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LNG 인수기지와 병커링 터미널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계획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업 유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의경 기자p04140@naver.com

대구 유망 스타트업들, 초거대기업의 동반자로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3회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밋업' 행사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 등 선도기

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유망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밋업 행사에는 삼성중공업, SK에너지, 호반건설, DGB금융그룹, 하나증권, 교보생명보험, 대동, 삼보모터스,

삼익THK, 카카오톡빌리티, 삼광, SK텔레콤, 이수페타시스, KT, 현대아울렛 등 선도기업 15개 사와 스타트업 49개 사 임직원 총 120건의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했다.

지난 2회의 밋업에서 총 27개 선도기업과 88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총 220건의 비즈니스 밋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올해 5월에 개최한 2회 밋업에서 이뤄진 총 138건의 비즈니스 밋업 가운데 100건의 밋업(72%)에서 '협업 가능성을 발굴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참여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5건의 밋업은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지원사업'으로 연계돼 5개의 과제가 선정된 바 있으며

市·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삼성중공업 등 5곳·스타트업 49곳 협업과제 고도화

민간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선정과제 3건,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자체적인 협업 추진 6건으로 총 14건의 협업이 밋업 이후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협업 성과가 선도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규모와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밋업

이후 협업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획지원, 실증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가능성과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스타트업들이 지역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구 지역 내 개방적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ac.kr



자연속 보물찾기, 모여라 메뚜기 친구들!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2024. 10. 12.(토)~13.(일) 2일간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104 어울림마당

주최·주관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성주군 성주군의회

저출생 전쟁 선봉장 경북, 정부 평가 '2관왕'

임산부 배려문화·환경 조성 등 만남~임출육 전주기 대응 호평 1천억 추경 편성 100대 과제 실현 이 지사 "구조 개혁 집중하겠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0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대통령 기관 표창은 경북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독교 텔레비전 3곳이 수상했다.

도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만남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난 9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지킴 공모 시상식'에서 종합 1위인 종합



대상도 받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 대응 전략과 지속 및 확산성 등 여러 부분의 공로가 인정됐으며 특히 체감도 높은 현장 실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경북도는 올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론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며 도정의 모든 행정력

을 총동원해 왔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 올해 7월 기준 혼인 건수가 5484건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했으며 해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도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T/F 체제에서 7월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 저출생과 전쟁본부와 도청의 우수한 젊은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든 성과라는 내부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주관

으로 이달 4일까지 6주간 진행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서 전체 420여명 중 1등과 3등이 저출생과 전쟁본부 소속 팀장들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쏠아올린 저출생 대책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중장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지역 먹거리 살려 도시 브랜드화 견인

최재필 경주시의원 5분 발인

최재필(사진)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역 먹거리의 개발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도시 자제를 브랜드화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설명하면서 포항물회, 영덕대게, 전주비빔밥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경주시도 육부촌 육개장과 곤달비 비빔밥을 메뉴로 하는 '별채반'을 상품화하고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채반이 경주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한우, 곤달비, 국수 등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필 의원은 최근 맛을 넘어 즐거



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을 뜻하는 단어인 '편슈머'를 공략하는 것이 식품업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면서 100세 이상의 인구

가 가장 많은 장수의 고향으로 알려진 충북 괴산군이 장수밥상의 개발과 함께 유명 셰프와의 협업으로 산딸기 고추 아이스크림, 피짜버거 등 독특한 조합의 음식을 선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사례에 주목했다.

지역 음식이 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최재필 의원은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주의 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경주시의 특색과 대중성을 갖춘 지역 먹거리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홍 "檢은 선거브로커 깨끗하게 정리하라" (명태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을 향해 "문제적 인물이자 선거브로커인 명태군씨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명씨는 "그럼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진다"며 자신있으면 해보라고 맞붙을 놓았다.

홍 시장은 10일 SNS를 통해 "명씨를 애초부터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파장을 키우는 예상 못 했다"라고 했다.

이어 "(명태군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며 "언론인 인사들도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라"고 권했다.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해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주문한 홍 시장은 "선거브로커 명씨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 대표님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렸다"며 명태군씨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그러자 명태군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한번 까보자고 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 까면 홍준표는 밤에 야반도주해야 될걸요"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과거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지지자가 의뢰했는지 모르나 여론조사꾼이라 상대하지 않았다"며 "내가 상대해 주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었다"고 명씨의 말을 물리쳤다.

뉴스1

시대 맞춘 경계작전으로 운영비 절감... 초급간부 지원폭 확대

임종득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70년간 변화 없는 작전 개념 지적 과학화 도입에 따른 병력 재편성 실질적인 교육·훈련 수행안 제시



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50억원을 투입해 도입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에도 약 46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인감시체계 발전 등 군이 내세운 청사진에 따르면 과학화 체계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계작전 투입 병력이 감소해야 하나 지난 2019년까지도 경계작전 병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15%가 증가한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군의 경계작전 부담을 덜어주자고 전문화적인 예산을 들여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입 병력이 늘어난다면 과학화 경계작전 예산은 아무 의미없는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경계작전 개념 전환

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침투 전술 변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 도입"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북한의 직접 침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960년대에 집중돼 있다. 1980년대부터 직접 침투가 급격히 감소하더니 19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계작전 분야의 첨단과학기술도 갈수록 발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계작전 개념에서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이 제한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임의원 측은 A, B 2개 지역의 경계부대와 예비부대 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계부대 보직율은 105~110%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편성됐고 예비부대는 80~85%로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득 의원은 "이런 경우 경계작전은 수행이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여단 급 이상 교육 훈련이 어려워 실제 적 침투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계작전의 개념과 관련 △GOP나 해안선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線)개념에서 GP, GOP, 철책선 후방의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개념으로 변경할 것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을 통합 운영해 병력을 절약하고 △축선별로 경계전담 여단을 편성해 운영할 것 △상비사단을 축소 중심에 배치해 평시에 전면전, 대침투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변화된 북한의 침투 전술, 위협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며 "인구절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전력 활용, 민간 군사기업 활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작전개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적극 동의한다"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준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조기퇴근 돌봄	학교 돌봄	심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도,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

제29회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식 시상식·전시회 함께 열어 '눈길' 31점 선정... 진애드 '대상' 영예

경북도는 안동(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자와 17개 전국 광역 옥외광고협회장, 경북옥외광고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경북도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가졌다.

옥외광고 대상전은 우수한 창작작품을 발굴·보급을 통한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29번째를 맞는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가 주최하고 (사)경북도 옥외광고협회가 주관, 경북도교육청 및 안동교육지원청이 후원하며 공모분야는 창작광고물 3개 분야(성인부, 대학생부, 초·중·고 학생부)와



기설치 광고물 1개 분야(사진작품) 등 총 4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

입상작품으로는 창작광고물 부분의 성인부 9점(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과 대학생부 6점(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학생부 12점(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6점), 기설치광고물 성인부 4점(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등 총 31점을 선정했으며

그 중 진애드(김완진)의 '햇살농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입상한 작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 출품해 경북 광고인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배웅수 건설도시국장은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옥외광고 대상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최선'

17일 영천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다양한 비교연구 성과 발표 진행

경북도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을 통해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와 4개 출연연구기관 공동으로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비교연구'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저출생 시대에 태실의 생명 존중 보편적 가치 확산과 함께 조선 왕실의 가뭄 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다양한 주제의 비교연구 성과 발표와 관계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이해는 ICOMOS 총규제의유산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다각부 마랄마(Nagganbuu Maralmaa) 몽골과학아카데미 민족학

및 무형문화재 연구센터장의 '태반 탕줄 안치 의식', 타니가와 아키오와세다 대학 인간과학학술원 명예교수의 '일본의 포의매납 습속 연구', 이재완 예천박물관장의 '대구·경북지역 태실 현황과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등 다양한 비교연구 발표로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성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조선의 장태문화와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명봉사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유산), 예천 문묘세자 태실, 폐비윤씨 태실(기념물)은 시·도지정문화유산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경북문화관광공사, 미국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쟁걸음'

애틀랜타 K-관광 로드쇼 참가 체험존·이벤트 홍보부스 등 운영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5일, 6일 이틀간 미국 폰시 시티 마켓(Ponce City Market)에서 개최된 '2024 미국 애틀랜타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미주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이자 국내 주요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애틀랜타에서 K-컬처를 활용한 방한관광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K-컬처 체험존과 이벤트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해 한국 브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국내외 여행사, 일반 관광객 등이 방문한 이번 박람회에서 공사는 "The

Heartbeat of Korea: Gyeongsangbuk-do"라는 주제로 경북의 주요 관광지와 K-드라마 촬영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공사는 경북의 대표 관광지 사진을 활용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오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의 경주도 홍보했다. 또한 잠재관광객에게 경북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들도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북부스에서는 경북나드리 SNS 이벤트를 진행해 경북을 대표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북 콘텐츠와 여행정보를 제공했다.

김남일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2025 APEC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경북도가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도교육청, 2025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일반·자율·특목고 127교 대상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등 127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점 기반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로 2명의 컨설턴트를 배정해 교차 검토 방식의 서면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2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편성 유의 사항 점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여부 △과목별 이수 시기와 위계성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오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전공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에 적합한 교과목 선택과 이수 계획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에 앞서 10월 42명의 교육과정 지원단을 대상으로 집단 토의를 열어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도서 120개 평생교육기관·단체 '한자리'

교육청, 11일 평생학습박람회 열어

경북교육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청도군에 있는 청도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경북도와 공동 주최하고 청도군과 청도교육지원청,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경북도인재개발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1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24청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행복한 희망공동체의 시작,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 평생학습!'을 주제로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대학 등 120여개의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평생 학습의 장을 펼친다.

박람회에는 시·군 홍보체험관과 작품전시관, 동아리 경연, 문해교육 시화전, 과학 체험존, 어린이영어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각종 특강과 체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이 참가하는 작품전시관 경진대회와 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우수한 시·군 기관과 학습동아리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공립 유·초·특교 임용 경쟁률 전년보다 ↓

교육청, 원서 접수 366명 선발 중 938명 지원... 평균 2.56대 1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66명 선발에 총 938명이 지원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쟁률은 지난해 3.5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유치원 교사는 20명 선발에 275명이 지원해 13.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318명 선발에 535명이 지원해 1.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5명 선발에 32명이 지원해 6.4대 1,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23명 선발에 96명이 지원해 4.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성 지원자의 비율은 35.4%로 지난해보다 5.6%가 높아졌다. 선발 분야별로는 초등학교가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유치원 0.7%, 특수학교(유치원) 18.8%, 특수학교(초등) 29.2%를 기록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1차 시험을 오는 11월 9일에 실시, 시험장소는 11월 1일에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Yeong Cheon Wine



최고의 맛이 쏟아지다
영천별빛한우

와인과 한우의 환상적인 콜라보, "영천와인페스타 with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

2024. 10. 12.(토) ~ 13.(일), 영천강변공원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급속 확산 '초비상'

내년 3월까지 지역별 맞춤 방제 보존가치 높은 소나무림 최우선 피해 고사목 지역, 활엽수로 교체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서 예년 대비 피해 면적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2024년 방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도는 피해 고사목 잔여량과 울

해 발생분이 누락하지 않도록 항공 예찰과 함께 드론 및 지상 예찰을 지난 9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방제 설계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도청에서 80여명의 시·군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과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소나

무재선충병 감염목은 40만본에 달하며 이중 36만본은 지난 방제 기간(2023년 10월~2024년 4월)에 제거됐고 잔여량을 포함한 4월 이후 대거 발생하고 있는 피해 고사목은 이번 방제 시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방제 대책으로는 가용예산과 인력을 한곳으로 투입해 △주민 안전과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최우선 방제 △재선충병이 극심한 지역인 특별방제구역에서 모두베기 후 활엽수로 수종 전환(175ha) 실시 △방제 현장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특임관' 운영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조소 확대

조정 △이력관계시스템을 통해 방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현에 산림자원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선충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매하마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고사목에서 월동하므로 이 시기 일괄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재선충 피해목 고사목이 신고되더라도 즉시 제거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CCTV관제요원 범인검거 기여 '이목'

상주경찰서,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 도운 2명에 감사장 수여

상주경찰서는 지난 8일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관제요원들은 새벽 시간대 범죄예방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행위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히 경찰 112로 통보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진수 서장은 "365일 24시간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통합관제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영주경찰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할 것"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지역 축제 기간 사고 예방 '심혈'

영주경찰서가 2024영주풍기인삼축제 기간 중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은 장터나 축제장 등을 찾아 치안문제점을 발굴·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범죄취약지 탄력 순찰활동, 성범죄,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범죄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치안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로 화장실 불법가게라 점점, 디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문기 서장은 "지역대표축제인 만큼 축제장을 찾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

객들에게도 마음 놓고 축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안전한 지역 치

안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대구 "어르신들,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65세 이상 발생률 뚜렷한 증가세 연 1회 결핵검진 집중 홍보 실시

대구시는 노인 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결핵검진' 독려를 위해 9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4분기(10월~12월)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결핵은 많은 사람에게 잊힌 질병으로 인식되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국가로 국내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다.

주로 결핵균이 원인이 되는 호흡기 전파 질환인 결핵은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등 감염력도 높은 편이다. 실제 대구지역의 지난해 결핵 신환자율은 33.5명으로 62.8%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등 현재도 진행 중인 질환이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에 따라 저질질 및 면역력·신체기능 저하를 가진 65세 이상의 결핵 발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발병 환자의 84.2%



가 무증상으로 응답함에 따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내소 어르신 대상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대구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적인 결핵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집중 캠페인을 하반기 진행 중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청송소방,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산악사고 2건 신고 접수·구조 사전 준비 통해 안전 산행 권장

청송소방서는 10월 2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구조활동을 했다고 알렸다.

오후에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 A씨(50대·남)가 다리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조활동에 나섰으며 병원에 이송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던 B씨(50대·남)가 연락두절 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량 5대, 소방관 20명, 의용소방대원 17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며 3시간 만에 체온증 및 기력저하 상태인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청송군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63건, 올해 10월 기준 4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3만3236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구조 인원은 8389명에 이르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해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체 출동건수의 25%를 차지했다.

문경환 서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상정보 확인 △개인의 체력과 당일 컨디션을 고려한 등산코스 선정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라고 알렸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주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앞장'

학교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 진행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3층 다온실에서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감 및 교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별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별도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반기 대면교육에 이어 세 번째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황미향 강사(대구여성회)를

초청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젠더 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디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성폭력 발생 시 고위직의 대처방안과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경주교육지원청은 해마다 진행되는 별도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행정실장, 원감·교감이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임을 인지하고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기업하기 좋은 경주, 원전 핵심 설비 기업과 '300억 투자유치' MOU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엔스 28년까지 명계3산단 사업장 설립 지역 상시 고용 인원 300명 전망 SMR·원전 산업 발전 '큰 기대'

경주시가 지난 8월 완성차 협력사인 ㈜대성사와 1100억원 투자유치 MOU 체결에 이어 원전 핵심 설비 강소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10일 오후 4시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원전 핵심 설비 강소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엔스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한봉섭 대표이사 및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담당, 임동주 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MOU 체결에 따라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엔스는 경주 명계3 일반산업단지에서 오는 2028년까지 약 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지역 내 상시 고용 인원은 3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엔스는 원자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핵심 설비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설계 및 공급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안전 등급 제어기기(PLC) 제조 기업이다. 이 두 기업은 한국수력

원자력 산하 신한울3·4호기 계속제어 설비 및 안전 등급 제어기기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신한울1·2호기와 새울3·4호기에 POSAFE-Q PLC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차세대 원전인 APR 1400 노형에 대한 경쟁정비 기술을 보유해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 시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투자는 한수원과의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엔스의 경주 사업장 개설을 통해 원전 발전설비 제작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다. 무엇보다 원전 발전설비 제조와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한봉섭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로 경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수산인더스트리와 수산이엔스의 대규모 투자는 경주시 원전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경주는 원전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 주민 주도적 사업 추진역량 배양 '힘'

4차 안강문화유랑 프로그램 진행 배후마을 대상 동아리 활성화 나서

경주시는 지난 9일 안강생활체육공원에서 배후마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안강문화유랑' 4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안강1리 외 10개 마을 주민과 지역예술인, 문화동아리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풍물놀이, 통기타, 하모니카, 실버댄스, 난타, 고고장구, 순가락 장단 등 그간 동아리 활동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안강 배후마을 동아리는 지역 동아리 및 마을 공동체를 발굴해 향후 추진되는 '찾아가는 문화배달부' 및 '배후마을 동아리 마을학교' 운영 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안강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권역별 마을 특성을 반영해 주요 거점시설을 활용하고자 각 기

관들의 상상 협력으로 '살기 좋은 안강'을 만들어 가는 농촌 문화플랫폼이다.

이재욱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 거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해 문화배달을 실천할 수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동아리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농촌소멸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시-맘존여성병원, 24시간 안정적 분만환경 조성 '맞손'

전문의 1인 인건비 월 1250만원 협약해지 시까지 지원키로 협의

경주시와 맘존여성병원이 24시간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분만의료기관 지키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저출산과 저수가 문제에 더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증가로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난에 따라 지역에 24시간 상시 분만 시스템을 갖추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진병철 보건소장을 비롯해 김용탁 병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맘존여성병원에 매월 1250만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인건비를 협약해지 시까지 지원키로 했다. 맘존여성병원은 전문적이고 안락한 24시간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그간 분만 취약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8~9월까지의 사업자 공모 절차와 지역 분만 산부인과 병원 간 간담회를 거치며 안전한 분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맘존여성병원은 지난 2007년 개

원 후 현재까지 2만5000여건의 분만과 85만여건 진료뿐만 아니라 미혼모 시설 업무협약,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서비스 협약 등 취약·위기 대상자 지원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

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또 한 걸음 내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낙후된 의료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시, 11월까지 APEC 성공 개최 기원 버스킹

내달까지 매주 서라벌문화회관

경주시평생학습가족관 평생학습동아리가 APEC 정상회의 유치 기념과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APEC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4시 서라벌문화회관 어린이헌장비 앞에서 7주간 진행된다.

APEC 정상회의 봄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버스킹 공연에는 평생학습

가족관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총 15개 팀이 참여해 독창적인 공연을 펼친다. 공연에 참여하는 팀들은 오카리나, 하모니카, 통기타, 난타, 향비파,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제공한다.

손주영 관장은 "이번 APEC 버스킹이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시민들에게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 시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경주시·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원 '한자리'

자매결연 26년간 우호 증진 힘써

경주시 행정동우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자매도시인 전북 익산시 행정동우회와 '2024 영호남 화합교류행사'를 개최했다.

경주보문단지 내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시의장, 오정균 전북 익산시 행정

동우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졌다. 경주시·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역사적으로 고도(古都) 육성 활성, 영호남 화합과 이해증진, 양 도시 우호 증진 등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고 서동축제, 영호남 화합교류 등 활발한 왕래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날 익산시 행정동우회는 월정교, 교촌한옥마을, 송문대, 반월성 등 경주의 주요 명소 문화탐방을 비롯해 오후에는 교원드림센터에서 경주시 홍보영상 상영, 양 도시 역점사항 정보교류 등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김정택 회장은 "2024 영호남 화합교류행사가 상호 단합과 결속의 장이 됐다"며 "평소에도 산불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어려운 계층을 위한 노력 봉사

등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동서화합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주낙영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적극 동참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년 APEC의 성공개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교류행사를 통해 행정동우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관광객 입맛저격

13일까지 대구스타디움서 열려 20개 전통시장 50개 부스 운영 먹거리 장터·축하공연 등 진행

대구시와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2024년 대구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전시·판매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상인들에게는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20개 전통시장이 50여개 부스에서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판매하며 먹거리 장터와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진행한다.

먼저 ‘전통시장 상품관’에서는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문시장 옛날강정, 번개시장 참기름, 신매시장 영양찰떡, 약령시장 경옥고, 방촌시장 아로니아 등 지역 시장 우수상품과 금산홍삼, 강경젓갈 등 전국 팔도 특산품을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밀키트관’이 신설돼 대구시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자체 개발한 11개 밀키트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행사 2일 차인 12일 오후 5시에는 전문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서변중앙시장 한우구이, 청구시장 흑임자떡, 서문시장 견과류 등 인기 밀키트를 특가 판매하며 온누리전통시장물(www.onnuri-sijang.com) E2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농금지장, 서남신시장 등 4개 시장 음식 명인들의 손맛 가득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시장 팝업스토어’에는 열정 넘치는 칠성야시장 셀러들이 즉석에서 요리하는 인기메뉴를 준비해 젊음의 활기를 더한다.

또한 특별무대에서는 11일 진행되는 개막식 축하공연과 더불어 우수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우수상품 경매쇼’, 시장 상인 가수왕을 선발하는 ‘상인가요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터 노래방’ 등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가 진행된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올해는 가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구스타디움에 행사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wondrumkakao@daum.net



군위군 ‘제48회 군민체전’ 성황리 마무리

1만명 군민·출향인 화합 다져 7개 종목서 산성면 ‘종합우승’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가 지난 8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1만여명의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란 슬로건 아래 전 군민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으로 이뤄졌다.

앞서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야제는 나태주, 김나희, 박규운, 성민지 등 청춘 트롯남녀들의 공연이 먼저 펼쳐졌다. 그리고 군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인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군위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새롭게 선보여 큰 호평을 받은 드론 라이트쇼를 더욱 확대해 군민들에게 선보였다. 350여개의 드론이 가을밤 하늘을 밝히자 군민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군부대 유치 기원 등 군위군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알리으로써 군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선수단 입장식,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개회선언 등을 시작으로 400m 계주, 줄다리기, 공굴리기 등 7개 종목의 경기에서 367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뤄 산성

면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올해는 제기차기와 팔씨름을 신설하고 번외경기를 새롭게 병행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군민들에게도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체육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한복, 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올 상반기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국노래자랑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이어 지역민이 함께하는 군민노래자랑을 진행, 다양한 소절과 끼를 가진 10명의 참가자들의 무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화합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회 중에는 흥준표 시장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군위군의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행사를 축하해줬다.

신현수 군 체육회장은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는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길 바라며 8개 읍·면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축제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준 체육회와 오늘 열린 경기를 펼친 각 읍·면 선수단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인정이 넘치고 체육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군위의 모습을 보여준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시 “장애인 가정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 즐길 수 있게”

기아㈜·(사)그린라이트와 협약 특수 제작 차량·운전기사 등 지원 희망자 초록여행 누리집서 신청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 여행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기아㈜, (사)그린라이트와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조 행정부시장, 이재화 시의회 부의장, 정의철 기아㈜ 기업전략실장, 이재강 (사)그린라이트 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 장애인,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개회선언, 출범사 및 환영사,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구시·기아㈜·(사)그린라이트 3개 기관이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의 여행을 활성화하고 대구 관광 홍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기아㈜, (사)그린라이트와 협력해 초록여행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기아㈜에서 차량 2대와 사업비 지원, (사)그린라이트는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은 지난 8월 (사)그린라이트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대구시장애인재활협회가 맡게 되며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특수 제작된 장애인 전용 차량을 무

상으로 대여하고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기사 지원, 사연 공모를 통한 여행경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유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기아 초록여행 누리집(https://greentrip.kr/)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예약은 1회 3박 4일 기

준 연간 10일 한도 내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타 지역 장애인 가족들이 대구의 명소를 방문해 지역의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wondrumkakao@daum.net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미래 설계 위한 대학 탐방 ‘호응’

포항대 재학생과 캠퍼스 투어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탐방 및 문화 체험활동을 위해 10일, 11일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미래 나의 대학생활 리허설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을 탐방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대

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했다.

청소년들은 첫날 포항대학교 치위생과에 방문, 재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와 학과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학에 대한 목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근처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및 포항시립미술관, 포항크루즈를 방문해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른날엔 경주월드를

방문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대학생 선배들이 직접 전공에 관한 이야기와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니 입학부터 생활까지 대학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또 포대 친구들과 대구 근교에서 한 다양한 문화 체험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향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

에게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으며 함께 제공한 문화 체험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탐방 프로그램은 대구권역 및 근교의 계명대, 대경대, 영남이공대, 대구보건대를 거쳐 올해 5회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지원, 진로·직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을 돕고 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대구보건대, SMP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대구보건대학교 Hi-FIVE HiVE센터는 지난 8일 스킨아트를 통해 탈모를 커버하는 ‘두피스킨아트(SMP)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의 일환으로 특수 미용 영역인 두피스킨아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직자, 경력단절인력, 신종년 재취업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와 두피스킨아트 분야 전문가 나노케어스칼프의 이수지

대표가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두피스킨아트 작업 도구 이해, 고무판 도트 실습, 헤어라인 디자인 실습, 두상별 맞춤 디자인 실습 등 총 45시간의 실무 위주 수업으로 운영됐다.

교육에 참여한 최지희(43)씨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며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두피스킨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매장 창업을 준비 중이며 2의 인생 설계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25만명 찾은 '2024 영주 풍기인삼축제' 대박!

지역 역사 스토리텔링 공연 인기 인삼병주 만들기 등 체험 진행 전국 댄스페스티벌·가요제 예정

2024영주 풍기인삼축제가 개막 5일 만에 25만명이 찾으며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이번 축제는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부터 매일매일 촘촘하게 이어지는 알찬 프로그램까지 하루만 방문하기 어렵다는 방문객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해마다 인삼채굴 시기에 맞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풍기인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를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풍기인삼의 주요 생산지인 풍기읍 남원천과 인삼문화 팝업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마당놀이 텐터이미전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공연과 함께 풍기인삼을 더 맛있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삼병주(酒) 만들기 △인삼짜기 경연대회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매일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인삼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 인삼(순금 1돈)을 선물하는 '황금인삼을 찾아라!' 등 특별 이벤트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남은 기간 △전국 파워풀 댄스페스티벌(11일) △소백산 영주풍기인삼가요제(12일) 등 매일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계속되며 오는 13일 폐막

공연에는 김수찬, 마이진, 배은희, 장예주, 임미정, 장하은 등 인기 가수들이 축제의 마지막을 빛낼 예정이다.

박남서 시장은 "축제장에 오셔서 '세계인의 건강식품' 풍기인삼으로 온 가족 건강 챙기시고 영주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군수배 전국 드론스포츠대회 '성공적'

올해 첫 개최... 46개 팀 열띤 경쟁 마늘축제와 연계해 볼거리 풍성

의성군은 지난 5일, 6일 이틀에 걸쳐 '2024년 제1회 의성군수배 MASTER of DRONE'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의성군수배 드론스포츠대회'는 한국모형항공협회, ㈜렐셀, 아디다스, IM뱅크의 후원을 받으며 진행됐다.

전국 각지의 드론슈퍼볼 레이싱 및 드론슈퍼볼(축구) 46개 팀이 참여해 승패를 떠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과 기량을 펼치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의성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선수와 가족 및 관람객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했다.

김주수 군수는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드론 레포츠 분야 활성화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저변 확대에 드론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 점촌5동 내 3개소 84면 주차난 해소 위해 '무료 개방'

문경시는 지역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점촌5동 지역 내 3개소에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84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지난 7일 무료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의 유휴부지를 매입해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소유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모전동 1025, 1026번지(신촌아구점옆)와 모전동 1146번(하이로즈FC 옆)지에 임시주차장 3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차 감소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6@daum.net

예천군민의 날 기념식·군민체전 '화합의 장'

12개 읍면 선수단·주민 참여 양궁·피구·육상 등 종목 대결

제26회 예천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60회 예천군민체육대회가 지난 9일 예천스타디움에서 12개 읍·면 주민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예천군체육회 주최·주관으로 열렸으며 12개 읍·면에서 참여한 선수단과 지역주민, 김학동 군수와 김형동 국회의원, 강영구 군의장, 도기욱·이형식 도의원, 군의원, 김수남·이현준 전(前) 군수, 원로 체육인, 출향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개최식은 예천그린실버학원 선두로 한 12개 읍·면 입장식으로 시작해 △김수남·이현준 전(前) 군수 공로패 수여 △김영규 단샘마을 사회협동조합 이사장, 김종복 호명읍 이장협의회 회장, 윤석규 유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최혁영 삼우개발 회장, 이



상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에 대한 군민상 시상 △군민의 노래 제창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성화 점화 △우승기 반환 △체육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동 군수는 기념사에서 "우리 예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고향 발전에 협조해 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군 체육회장은 "읍·면 선수들과 주민들의 우애를 다지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회식과 축하공연 후 이어진 체육

대회에서는 양궁, 활 서바이벌, 피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팔씨름, 여자중량들기, 육상 100m, 400m 계주 종목이 진행됐다.

경기 결과 호명읍이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풍양면이 준우승을, 용문면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벤트 경기로 진행된 육상 400m 릴레이 스페셜 매치에서 12개 읍·면과 지역 내 기관단체, 출향인 13개 팀이 대결을 펼쳐 풍양면이 우승을 차지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성료'

24개 읍면동 44개 팀 참가

안동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8회 안동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4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44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경연대회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연계된 만큼 참여한 모든 팀이 탈을 쓰거나 탈춤과 어울리는 분장으로 장구, 합창, 댄스, 난타 등의 공연을 펼쳐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일 차 대상을 수상한 안기동의 '정

춘 5080' 팀과 2일 차 대상을 수상한 중구동의 '보랏빛 향기 댄스팀'은 탁월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3일 차에는 평균 연령 80대로 구성된 북후면의 '북후면 옹기종기 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감동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경연의 자리가 아닌 주민자치 위원 간 화합과 교류를 촉진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조달흙 협의회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안동을 만드는 중심에서 늘 첨병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영양군, 1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영양군은 11일부터 보건소(지소·진료소) 및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인 영양병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74세는 오는 15일부터, 그 외 전 주민은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순차적 백신접종을 시작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무료 접종자는 생후 6개월~13세, 임

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60-64세 주민,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입소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은 전액 군비 지원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4-59세 주민은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비는 1만1000원이다.

접종 대상자는 접종 기관 방문시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국민권·강보합증, 입산부는 산모 수첩 제시 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김정태 기자tae66611@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메뚜기 잡고 사과 낚고 '온종일 신나는 성주'

12·13일 '2024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수련면서 개최 먹·즐길 거리 다채, 주민주도형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오는 12일, 13일 이틀간 수련면 수성리 어울림마당(수성리 104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자연속 보물찾기, 모여라 메뚜기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 가을운동회, 경북도 아이사랑 가족대축제, 지역 축산물 시식·판매 행사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다.

올해 축제는 메뚜기 잡이, 고구마 캐기, 사과 낚시, 메기잡이 등 친환경 농

촌체험 프로그램과 몸빼바지 릴레이, 박터트리기 등 가을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색동물원 및 다양한 체험 부스로 가득한 경북도 아이사랑 가족대축제와 바비큐 및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배동희 축제추진위원장은 "고구마 심기에서부터 가래떡 뽑기 등 행사 진행까지 축제장 구성구석 주민들의 손길이 닿아있다.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부심을 품고 준비한 만큼 축제장을 방



문한 가족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즐기고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환 군수는 "메뚜기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북도 미소 축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주도형 친환경 농촌

체험 축제로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농촌체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1515@daum.net

군수·주민 소통 '情류장 토크 콘서트' 눈길

10~70대 칠곡지역민 100명 참석 나눔·봉사 헌신한 주인공들 소개

"칠곡의 자랑은 특산품이 아닌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고 자치단체장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이색 토크 콘서트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칠곡군은 최근 향사아트센터에서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 정(情)류장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주민은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명성을 얻거나 나눔과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군민을 소개해 일반 주민들이 군정 발전에 원동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는 미담의 주인공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1부 '감동'에 이어 일상의 주인공들이 흘리는 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2부 '동감'으로 진행됐다.

여행 스케치 등의 인기 가수의 공연

과 아름다운 화음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칠곡의 희망을 밝혔다.

30인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위키정군을 기억하며 1000원 모금운동을 펼쳐 흉상을 건립한 김동준(순심고1)군과 백혈병을 극복하고 복학한 김재은(순심여고2)양이 포함됐다.

또 다섯명의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가족과 72세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어르신은 물론 광복절을 맞아 90%가 넘는 세대가 태극기를 게양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무성아파트 주민들이 포함됐다.

50대에 음반을 발매하며 가수의 꿈을 이룬 김재연씨와 3대에 걸쳐 봉사활동을 이어온 김주희씨 가족이 함께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한재홍 한스베이커리 대표와 권차남 무료 급식소 소장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화제를 입은 경쟁업체에 도움을 손길을 내민 박병태 대일기업 대표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탠 배민화 모브스스 대표도 함께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72돌 고령군 재향군인회, 영호남 화합 '앞장'

완주군 재향군인회와 친선 교류 유공자 표창·향군의 다짐 낭독

고령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8일 가야고마을에서 향군 창설 72주년 기념 및 제27차 영호남 친선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을 맞아 전북 완주군 재향군인회원을 초청해 김중복 고령 부군수, 이철호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120여명의 향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회원의 단합과 향군의 역할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최하게 됐다.

완주군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오전에 충훈탑 참배와 고령군의 역사유적지와 문화관광지를 탐방 후 오후 행사로 가야고마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향군 유공자 표창과 향군의 다짐 낭독, 기념품 상호 증정, 안보결의문 낭독 등 기념식을 가진 후 만찬과 함께 영호남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문광주 고령군 재향군인회장은 "앞으로도 친선 교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고 김경원 완주군 재향군인회장은 "고령군 재향군인회의 환영에 감사드리며 지역은 다르지만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목표는 하나다"라며 향군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중복 부군수는 "고령군을 방문해 주신 완주군 재향군인회에 감사드리며 영호남 친선 교류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 간 단결과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향군인회 영호남 친선 교류 행사는 지난 1998년 시작해 완주군 재향군

인회와 고령군 재향군인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해마다 상호 방문·격려하며 추진돼 왔으며 영호남 회원 간의 화합과 지역 특산물 교환, 관광지 답사 등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일호기자hoya1515@daum.net

개막 임박 구미라면축제... 알찬 준비 '착착'

시민 보고회 열어 최종 점검

2024 구미라면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 주제로 개최된다. 구미시는 구미라면축제를 대표민국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낭만문화축제위원회, 시의회, 자원봉사 단체, 축제 참가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구미라면 축제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윤성진 축제기획단장은 구미라면축제의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하며 확 달라진 콘텐츠와 색다

른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올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보고회에 앞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서 음식 문화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2024 구미라면축제 지속가능성 실천 선언식'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 3회째를 맞은 구미라면축제를 통해 구미시가 명실공히 라면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올해도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익문기자ub0104@hanmail.net

김천 감천면 새마을협의회, 농약 빈 병 수거 활동 '구슬땀'

도양·수질 환경오염 예방 위해 회원들 적극 봉사활동 펼쳐 눈길

김천시 감천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8일 회원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약 빈 병 수거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의

폐농약병 등 폐기물을 처리 민원 해결과 더불어 농약으로 인한 도양 및 수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폐농약병 등 폐기물을 모으고 마을 및 들뜰에 방치된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해 빈 병, 봉지, 영양제병, 잔류농약병 등으로 분류하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종화 협의회장은 "바쁜 가운데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농약병 수거 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회원들의 두 손을 보태 달라"라고 말했다.

지운선 부녀회장은 "회원들과 깨끗한 감천을 만드는 데 동참해서 기쁘다. 새마을은 앞으로도 새로운 마을 공동체로서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감천

면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상진 면장은 "청결한 감천, '해피투게더 김천' 청결운동을 위해 어렵고 힘든 농약병을 수거·분류작업에 애써 주신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하며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지킴이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 면에서도 청결운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naver.com

상주, 시민의 날 맞아 11일까지 시민픽 상품원데이 특가 기획전

상주시는 '상주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몰을 통해 '상주시민픽(PICK) 상품원데이 특가'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12일 상주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4일간 진행하며 상품별로 18%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주시민픽(PICK) 상품은 지난 1년 동안 상주시 회원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들로 엄선했다. 총 15개의 상품을 4일간 하루 3~4개씩 원데이 특가로 만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실상주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상주시민의 날을 맞아 명실상주몰에서 준비한 할인행사를 통해 많은 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창완기자changwan12@naver.com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내 일(My Job) 위해 함께 하는 오늘 '포항취업박람회' 15일 만인당서 개막

포항시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만인당에서 '내 일(My Job)을 위해 함께 하는 오늘'을 슬로건으로 '2024 포항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포항시와 대구고용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수시 채용으로 기업의 빈 일자리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예코프로머티리얼즈와 포스코 장비3사(PR테크, PSETEK, PHS솔루션)를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지역 기업 52개 사(경주 2개 사 포함)가 참여해 당일 기업별 부스 현장 면접을 실시, 현장직과 사무직, 기타 직종을 포함한 총 25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알뜰판을 통해 30개 사가 간접참여, 51명을 별도 선발하며 포스코퓨처엠, 예코프로, 우전지앤에프, 피엠티그룹, 비에스원 등이 참여하는 신산업 홍보관 이차전지 특별전 연계 운영으로 포항시의 우수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와 산업 동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올해 출범한 배터리 아카데미 남부권캠퍼스가 참여하고 지역의 우량기업인 현대제철과 OCI가 기업홍보관을 운영해 향후 채용계획 및 기업

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채용설명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업체 부스와는 별도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투리시간거래소 △취업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취업 지원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며 해병대와 해군 간부모집 홍보를 위한 특별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증명사진 촬영관 △퍼스널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킹 △마음건강 고민상담소 등 구직자들의 취업 편의를 높이고 원스톱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상생일자리 △포스코 하이테크 플랫폼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취업 준비에 지친 구직자들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제공한다.

현장 참여업체는 포항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 구직자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후 구직서류를 지참해 현장 면접에 참여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 후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일자리종합센터(054-280-3275-6)로 문의하면 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청도, 축제 전 막바지 안전점검 '민관 한뜻'

청도군은 지난달 26일 '2024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평생학습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이어 지난 8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경찰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사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문단과 교통질서, 위생, 보건, 전력 시설, 건축물 등 축제 관련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장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축제 개최 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기선 등 보행자 걸림 요소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전기배선 안전 설치 여부 △폭죽·불꽃놀이 파편 관촬적 낙하 방지 조치 △무대 및 주위 시설, 가스 소화 시설 △소방안전 조치 △교통통합 및 경찰안전 분야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확인함으로써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유형의 안전 저해 요인을 미리 발굴하고 즉각 조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안을 뒀다.

김하수 군수는 "즐겁고 유쾌해야 할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맡은 역할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영천시 평생학습관, 알찬 배움터로 '자리매김'

일평균 500명 찾는 등 '큰 호응' 어린이 특강 등 프로그램 다채 평생학습 문화 조성 위해 최선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무더운 여름 끝자락 찾아온 배움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강, 일평균 500여명의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아카데미'는 바쁜 직장인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슬기로운 부모 수업, 우리 아이 행복 ON!'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 데인 관계 기술부터 MBTI로 알아보는 자녀와의 의사소통법까지 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 초청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26일까지 운영한다.

△'The(더) 공감 인문학 특강'은 이

달 김영모(한국미래지식원 대표) 강사를 초청해 '우리 삶의 가치를 찾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개설되는 특강인 만큼 꾸준히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11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특강'은 체험활동 수업(쿵글클래스, 도예, 토탈공예 등) 및 사고력 수업(큐브퍼즐, 위인역사탐험, 미술 등) 위주로 편성해 지역 내 초등학생 120명이 10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무용 수업은 장애 어린이를 우선 모집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마련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단기특강'은 시민 니즈(Needs) 충족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교육 정규 과정에 없는 신규 강좌(케이킵 디자인, 양금플라워, 타로 등) 위주로 편성해 230명의 수강생이 18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교육 정규 과정 전 부담 없이 수강하기에 좋은 강

의 위주로 편성, 모집 당일 정원이 모두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시민사회교육'은 시민 누구나 배움을 즐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전문·기술, 교양·문화 등 61개 과목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영천시민대학'은 평생학습관 연간 프로그램으로 인문, 역사 등의 교양 수업뿐 아니라 공예, 페이퍼플라워와 같은 체험 수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시민 소양 함양 교육이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개설돼 수강생들의 관심도가 높아 올해도 정원이 모두 마감되는 등 수강생 40명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영천캠퍼스를 포함해 도내 19개 시·군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생 100세 시대에 수 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

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성운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며 입학생 50명이 70% 이상 출석 및 사회참여활동 5시간을 참여하면 명예도민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오는 12월 6일까지 운영한다.

김미희 관장은 "풍요로운 가을 기운처럼 풍성하게 구성된 강좌로 수강생분들의 삶이 배움으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시민 니즈(Needs) 중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시민 개개인의 소양 함양은 물론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이보은(생활요리연구사 대표) 강사를 초청해 '집밥의 변천사'를 주제로 시민행복아카데미 특강(오후 2시, 평생학습관 우석홀)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및 특강 일정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식열 기자sy92920@hanmail.net

건강 산행 문화 만드는 '경산시장기 갯바위 등산대회' 성료

산악 동호인 500여명 기량 겨뤘 환경정화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

경산시 외촌면 갯바위 일원에서 전국 산악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경산시장기 갯바위 등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환경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건강한 산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산악연맹 회원과 일반 등산객들은 남·여 일반부와 혼성팀으로 나뉘어 4.2km 코스를 완주하며 기량을 겨뤘다. 외촌면 대항리 갯바위 제3주차장에서 출발해 은혜봉 삼거리를 반환



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 대회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팔공산의 절경을 느낄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등산 안전수칙 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등산장비, 수통, 비상식량, 의료용품 등 배낭 준비물 점검과 체력평가가 이뤄졌다. 안

전한 대회를 위해 응급구급차 배치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됐다.

조현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온 산악 동호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등반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회를 즐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해마다 등산대회를 개최하며 산악 동호인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관광과 문화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울진, 행복마을 배달사업 실시... 지역 주민에 재능 나눔

손마사지·네일아트 등 제공

울진군은 지난 8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랑배달'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6개 단계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손마사지와 네일아트를 제공하며 주민

들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고 즉석 사진 촬영을 통해 오늘 하루 추억을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또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급식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짜장면을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더진 식도

를 갈아주는 이색적인 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구급함을 전달하면서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그야말로 자원봉사 종합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옥태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지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고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재능 나눔을 펼친 특별한 봉사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군수는 "갈고닦은 재능을 주민들을 위해 나눠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건강한 울진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i09102@naver.com

경북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91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운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청도군, 간판 정비로 도시미관 ‘업그레йд’

청화로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청도삼거리~청도역 인근 740m 108개 업소 벽면·돌출형 등 포함

청도군은 지난 8일 ‘청화로 중심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판 개선사업은 청도 중심 시가지의 간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상가 업주들의 요청이 많아 추진됐다. 청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청화로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시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청도상상마루 사업과 청도시장상가 거리와도 연계해 전반적인 시가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을 포함한 이번 간판 개선사업은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도는 분기별 생활 인구 32만명이 방문하며 이는 전국 7위, 경북도 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간판 정비를 통해 청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

청도의 관광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도시 미관 개선과 간판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성과이다. 사업은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구간은 청도삼거리에서 청도역 인근 약 740m에 이른다. 개선 대상은 108개 업소로 벽면형, 돌출형, 지주형, 창문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 포함된다. 청도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차와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가 업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청도군의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하고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영주, 목포 농업인과 ‘영호남 상생 교류’

생활개선회 회원 등 40여명 내방 풍기인삼축제 참관·인견공장 견학

영주시는 지난 8일, 9일 이틀 동안 ‘2024영주 풍기인삼축제’에 자매도시인 전남 목포시 농업인단체를 초청해 ‘영호남 상생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목포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회원 총 40명이 참여해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참관하고 국립산림치유원과 인견공장 방문, 지역 농산물 우수성 홍보 교류식 등의 시간을 가졌다. 영주시와 목포시는 지난 1998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해마다 상호 방문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선진농업기술정보교류를 하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자매결연도시인 목포시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영주지역의 대표축제인 인삼축제도 흥겹게 즐기시고 영주와 목포 두 도시가 상호교류행사를 통해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한수원 설비개선처 “지역 주민 복지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주 서면에 편백배게 70세트 기부 해마다 다양한 봉사활동 ‘훈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설비개선처는 지난 8일 서면 행정복지센터에 400만원 상당의 편백배게 70세트를 기부했다. 한수원의 지역사회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된 편백배게는 서면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수원 설비개선처는 서면과 자매마을 관계를 통해 해마다 기부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정원수 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진도 서면장은 “한수원 설비개선처의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기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

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의성,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 선도 ‘탄력’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유무선 통신인프라’ 실시실계 보고

의성군은 지난 8일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실시실계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KT컨소시엄이 수행한 구역 결과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인프라인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설계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설계된 통신 인프라는 의성군 사곡면 생산단지과 봉양면 실증단지에서 설치될 예정이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고품질의 농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및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설계는 관련 법률 및 기술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 진행됐으며 CCTV 통합영상 관제, 네트워크 설계, 전기통신공사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지능형 합체와 생육관리용 AI 카메라 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이 구현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통신인프라 구축은 스마트농업의 핵심 기반으로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농업 혁신을 선도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칠곡 새마을문고 ‘칠곡군민 문화한마당’

글짓기 등 다양한 콘텐츠 ‘성료’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에서는 지난 9일 왜관소공원에서 올해 스무번째를 맞이하는 칠곡군민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당일 발표된 주제에 대한 운문, 산문 창작과 그림 그리기, 오형서 쓰기와 함께 알뜰도서관 무료교환시장, 벼룩시장, 참가자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한마당 잔치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제2 새마을국민운동으로 ‘부모님의 날’을 함께 열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전에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통해 참가자들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오형서 쓰기 등에 열중하는 동안 아이들

과 함께 온 부모들은 부모쉼터에서 네일아트, 맞춤 메이크업, 타로 등 특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쉼터에서는 캐릭터 키링, 폰스트랩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활동이 진행됐으며 특히 벼룩시장 판매대금, 부스 체험비 등 모든 수익금 전액을 ‘저출생과의 전쟁’ 성금으로 기부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김재욱 군수는 “20회를 맞은 오늘 행사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 일반인까지 문화적 소양을 맘껏 뽐내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성주 가천면 용사리, 불법소각 근절 ‘모범’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 선정

성주군 가천면은 용사리가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로 선정돼 지난 8일 용사리 마을회관에서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산림청 주관 캠페인이다. 산림청에서는 이장 등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규범이 잘 정립돼 있고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소각산불 방지 대응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용사리마을은 산림이 연접한 산불취약지역이지만 마을주민 모두가 각종 불법소각 근절 서약을 이행함으로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진정환 이장은 개인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달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활발히 해 우수마을 선정에 기여했다. 이호원 면장은 “관습처럼 굳어진 불법소각 행위를 스스로 근절해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마을 주민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내 모든 마을이 녹색우수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수원 월성본부,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지난 8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월성본부 전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강사로 초청된 이정규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신 해킹 기법과 정보 유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직무 상황 속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수력원자력 및 협력사 직원으로서 국가 보안을 위한 책임을 재인식했다. 김한성 본부장은 “이번 정보보안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보안 의식을 갖고 회사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블에이치플랜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캄보디아에 2만가구 한국형 미니 신도시 '부영타운' 들어선다

프놈펜에 주상복합 아파트 오픈
전체 중 1차 1474세대 우선 선택
후분양 아파트로 즉시 입주 가능
단지 내 학교 설립해 교육 제공
쇼핑몰·스포츠센터 조성 편의 ↑

부영그룹은 지난 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위치한 '부영타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

'부영타운'은 부영그룹의 해외법인인 부영 크메르II가 2만여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전체 세대 중 1474세대를 우선 선보인다.

이날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이종근 회장을 비롯해 사이 씬알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후엣 하이 프놈펜시 부시장,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근 회장은 "한국형 아파트인 부영타운이 앞으로 프놈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캄보디아의 주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영타운'은 순차적으로 공급해 총 2만여세대의 미니신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단지 내 대규모의 '우정 캄보



디아 학교'가 조성돼 입주민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먼저 선보이는 '부영타운' 1474세대는 지하 4층~지상 21층 총 4개 동 규모로 65㎡ 568세대, 85㎡ 608세대, 117㎡ 298세대다.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를 마친 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외국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부영타운'은 전 세대 빌트인 시스템, 고급 마감재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적용해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했으며 관상형 구조로 설계해 자연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다. 단지 내 상가에는 대형 스포츠센터(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총 223개 점포의 중대형 쇼핑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센속은 프놈펜시에서도 메인 중심부에 속하며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현지인

들의 수요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일대에 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 국제학교 등이 있다. 향후 2만여세대의 대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부영타운 내에 위치한 '우정 캄보디아 학교'는 연면적 1만5994㎡, 3개 동 5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간호대학, 노인복지시설까지 총 125개 교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규모로 지난 9

월 초 개교했다.

'우정 캄보디아 학교' 동측에는 캄보디아 교민 자녀들을 위한 '프놈펜 한국국제학교(KISPP)'도 위치해 있어 캄보디아 교민 2세대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기업 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통 디명세 전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한국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는 부영그룹이 최고"라고 할 만큼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버스과 트럭 1400대를 비롯해 라오스에 700대 등 총 2100대의 버스를 기증하기도 했다.

버스에는 부영그룹 브랜드인 원앙마크와 한글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교육용 칠판 60만개와 디지털피아노 7만대 등의 교육 기자재를 기부해 왔다. 캄보디아에는 디지털피아노 3000여대와 교육용 칠판 4만여개, 초등학교 300개 교 건립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국기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의류, 신발 등을 기부하고 응급차를 비롯한 의료기금 지원 등이 이어 나가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근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으며 올해 5월에는 캄보디아 훈 마넛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돼 캄보디아의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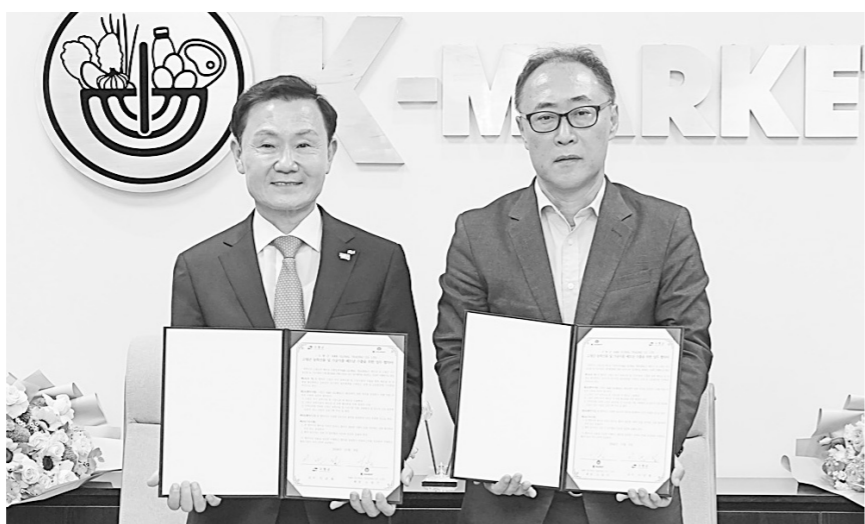
고령, 베트남 시장 수출 380만달러 '대박 행진'

고령군 해외무역사절단은 지난 8일 한국의 3대 무역 교역국인 베트남(하노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 상담 총 44건, 708만6500달러(원화 95억6000만원) 상담액 중 기업 간 MOU 체결 실적으로 총 13건, 380만달러(원화 51억2000만원)라는 쾌거를 거뒀다.

참가업체로는 ㈜지산타포린, 해원산업(주), 이엔비무역, 단산주철, 대립팜스, 엠스푸드, 발달라스, 주식회사 에스디, ㈜삼정특수고무, ㈜나호테크 10개 기업이며 가공식품, 1차금속(자동차부품), 타포린 및 고무물 등 종합 품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고령군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 연합회(KOCHAM, 회장 홍선)와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남철 군수와 김기창·성낙철 군의원, 김종태 고령군상공인 협의회장, 윤휘 주베트남 한국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해 고령군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및 지역 우수 제품과 농식품의 공동 컨설팅,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군은 베트남 현지 1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회장 고상

구)과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마켓 본사 물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남철 군수와 김기창·성낙철 군의원, 김종태 고령군상공인 협의회장, 신영화 K-마켓 총괄사장이 참석했으며 이날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인 엠스푸드(냉동피자), 발달라스(김), 이엔비무역(신선식품 등)은 제

하노이 현지서 수출상담회 진행 주베트남 상공인연합·K-마켓 MOU

품 홍보 및 시식행사를 가졌다. 더불어 고령군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마켓은 지난 2002년 설립돼 베트남 현지 136개 매장, 임직원수 1800여명의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유통회사이다.

아울러 베트남 해외투자청을 방문해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고 고령군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베트남 해외투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남철 군수는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해 고령군의 우수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이라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뒀다. 또한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과 수출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 고령군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가스공, 우수 선화주기업 '최고등급' 획득

공공기관·벌크화물 분야 최초 인증
30년간 국내 해운산업 발전 기여
글로벌 LNG 해운선사로 '발돋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최우선이자 벌크화물 분야 최초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제도는 해상운송수단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선주와 화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를 대량 수입하는 화주로서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 △해운산업 기여도 △장기 계약 운임 조건 개선 등 13개 세부심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최고수준

인 1등급을 획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4년 국적LNG선 취항 이후 현재까지 국내 해운선사들과 30여건의 LNG선 장기 수송계약을 체결해 해운사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본 인증을 받았다.

특히 국내 해운선사들은 가스공사와의 장기 수송계약을 기반으로 그간의 축적된 LNG선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LNG 수송시장에 진출해 셀, 카타르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LNG 화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LNG 해운선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최연혜 사장은 "국적선사들과의 오랜 상생협력과 ESG경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국내 해운선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봉화 물야면, 겨울나기 이불 나눔



봉화군 물야면은 지난 8일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등 저소득 취약가구 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온기를 담은 사랑의 이불을 마련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이불 나눔은 맞춤형통 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마을 이장들과 함께 가구를 방문해 안부도 전했다.

함께 참여한 김규현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계기로 우리 이웃이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람을 나누기 위해 함께하겠다" 라고 전했다.

정승욱 면장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 사랑의열매 봉사단, 기부운동



의성군은 지난 6일 의성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나누는 기쁨, 희망과 행복'의 슬로건 아래 일상 속 기부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나눔봉사단은 의성군 슈퍼푸드마을 축제를 맞아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현장 기부를 안내하고 착한 가정, 착한가게, 착한넷 및 저출생극복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기부운동을 홍보했다.

김윤희 단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인사

◇봉화군

5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박정호 △체육시설사업소 우정수

한수원, 임직원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 '앞장'

러브 모아 펀드 모어 캠페인
취약계층 아동에 기부 '눈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 기부금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 기부금 캠페인은 임직원 개개인의 '사랑을 모아 기부 펀드를 더 모은다'라는 의미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되고 있는 기부금 모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시작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지난 한 달간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기부 분야(가족돌봄 아동, 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재능아동), 기부 기간 등을 선택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운영했다.



또 기부에 참여한 임직원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를 하며 재미도 느끼도록 해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한수원은 이 캠페인을 본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며 앞으로 회사 전체에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

은 이번에 키오스크를 통해 모은 기부금 중 일시모금액 약 400만원과 한수원 임직원 기부금 '러브펀드' 600만원을 더한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주호 사장은 "한수원만의 새로운 시도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기부 재원을 마련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지역 인재 육성 '힘써'

청송군은 지난 8일 청송노래산풍력발전(주)이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청송노래산풍력발전(주)은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올해까지 총 8000만원을 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적립돼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광철 대표는 "청송의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송군의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군수는 "이 장학금이 청송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남원동 행복센터, 민방위 업무 장관상 '영예'



상주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2024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번 표창은 민방위 대원 편성 관리와 교육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또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 대를 효율적으로 편성, 적극적인 민방위 교육 홍보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높은 교육 이수율(99.3%)을 달성했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구미소방, 소방정책 연구 소방청장상 '꽤저'



구미소방서가 지난 7일, 8일 '제36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대표로 참가한 구미소방서 연구팀은 '재난 현장 소방차량 밀집현상 개선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했으며 AI기반 소방차량 객체탐지 기술을 적용한 소방차량

배치 시스템(FTPS)으로 현장지휘에 있어 적합성과 효과성 부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임준형 소방서장은 "고도화된 소방차량 배치 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동정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1일 오후 6시 김해 종합경기장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페루 라마-경주 APEC 사진전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동국대 도서관 갤러리서 열리는 2024 APEC 페루 라마-2025 APEC 대한민국 경주 사진전에 참석한다.

거점형 주민대피시설 업무협약



권기항 안동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시청 응부관에서 풍수해 대비 거점형 주민대피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영주 장애인하마춤 체육대회 참석



박남서 영주시장은 11일 오전 11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영주시 장애인하마춤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최재훈 달성군수는 1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서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업무 보고·청취한다.

금수강산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주군 금수강산면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이장들을 주축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쳐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문환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희성 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알리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성주군 재정 확충, 복리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바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t1515@daum.net

구름계곡 물따라 바람따라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유산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연점유?
인문 정서 문화에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로 계곡위의 봉주대에 자리해 폭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자 앞에는 약300년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 가을이 되면 화려한 단풍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 모습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01 구름을 걷는 선비	구름 속으로	서원 및 배향인물에 대한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의 다도·서예체험	30분
	백성과 자연을 사랑한 선비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국악공연	30분
	<small>*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small>		
02 구름속의 선비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구름 속으로	온재산의 불과 관련된 설명과 지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복 체험	30분
	구름 플로깅	편편수막 주머니를 이용한 플로깅 활동	30분
	유연점유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다도명상	30분
<small>*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small>			
03 기미를 알고 권도를 행하는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내용	시간
	인문학 강의	서원의 기능과 배향인물을 통해 그 시대상을 배우고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의	10:00 12:00
<small>*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small>			

기간 2024년 3월~11월 신청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김산문화재단 후원 국가유산청 · 경상북도 · 경주시



청송군은 자원봉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부남면 대전3리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마을주민들이 주도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청송군지회, 청송읍건강마을지킴이, 손사랑봉사단, 행복나눔집수리봉사단, 청송라온색소폰앙상블, 청송사친회, 부남면새마을부녀회 등 7개 단체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인식개선 교육,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손마사지, 칼같이, 색소폰 공연, 추억사진 촬영, 맞춤 돌보기 지원, 고무신 공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

윤경희 군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더욱 행복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칠곡, 외식업소 '칠곡맛' 컨설팅



칠곡군은 '칠곡맛'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8일 칠곡군 가족센터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칠곡맛' 컨설팅은 칠곡군의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트렌드, 외식브랜드와 디자인,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과 블로그·SNS·배달앱 등 홍보마케팅 활용 교육, 밑반찬 특화교육, 외식업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이 된다.

외식업지부를 통해 선발된 외식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칠곡군 가족센터의 교육장 및 조리실에서 2개월간 매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칠곡군 외식업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상주농업대 '농업마케팅과' 수료... 새 도전 응원

수료생들 교육과정 완료 축하 농진청장 공로상 등 다양한 시상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제18기 상주농업대학 '농업마케팅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상주농업대학 학장인 강영석 시장과 수료생 가족 및 관계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생들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완료를 축하했다.

상주농업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증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해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올해 17기까지 755명을 배출했다.

올해 상주농업대학은 입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개강해 총 26회, 연간 108시간에 걸쳐 마케팅 기본 이론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



습 및 선도농가 견학 등 농업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생은 출석률 80% 이상과 졸업시험, 개인과제 발표, 보고서 제출 등 엄격한 학사 규정을 모두 통과한 38명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생 대표인 고필호 학생회장이 농촌진흥청장 공

로상을 받았고 농업대학 과정 중 학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김현수(모동면)와 2명이 성적우수상을, 농업대학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박미영(내서면)의 6명이 모범상을, 학생들의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감사장을 이석재(이안면)의 3명이 수상했다.

강영석 학장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힘든 날도 있었겠지만 묵묵히 끝까지 달려와 수료증을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료는 단순한 종료라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므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경주,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팔 걷어'

경주시가 지난 7일 '제24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해 감포읍 오류고아래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안길 비치코밍 활동을 펼쳤다.

비치코밍(Beachcombing)은 빗질하듯이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경주시, 포항해양경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등 3개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오류고아래해수욕장

일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심진 기자wba112@daum.net



영주 무지개숲어린이집, 나눔 가치 '실현'



영주시는 10일 무지개숲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인 70만3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 행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는 자원 재활용 행사로 지난 9월 27일 148아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장현미 원장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종우 시 복지정책과장은 "무지개숲어린이집의 기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은척면 적십자봉사회, 세탁 자원봉사 '훈훈'



상주시 은척면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 복지서비스 행한 빨래터를 운영했다.

이날 세탁봉사에서는 회원들이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20가

구를 찾아 빨래감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 후 세탁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했다.

박일룡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안정현, 문화관광 해설사 경진 '금'

봉화군 안정현(사진) 문화관광해설사가 지난 9월 30일, 이달 1일 이틀간 문경에서 개최된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안정현 해설사는 "2024년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개최한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봉화 정자가 품은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경북도 시·군 참가자 중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안정현 해설사는 향후 개최되는 '2025년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가해 봉화의 문화를 홍보하는 자격을 얻게 됐다.

안정현 해설사는 "봉화문화의 정통성, 봉화문화의 정체성, 봉화문화관광의 우수성 등을 봉화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전달해 그분들이 진정 다시 찾고 싶어하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김천 부항면, 10월 이장회의 마무리



김천시 부항면은 지난 8일 '2024년 10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글날 태극기 달기 운동 △제36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김천김밥축제 △2024년 김천시 민체육대회와 같은 주요 공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김천시 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버스 인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민체전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춘식 협의회장은 "시민체전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0@naver.com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무엇보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천년고도 보고 경주박물관 '通'... 관람객 100만명 훌쩍

현재까지 105만5035명이 찾아 어린이박물관학교 특별전 20만↑ 시민·방문객 견인차 역할 '특독' 축각체험·점자·석굴암 탐본 등 쉬운 접근성·이색 콘텐츠 '호평'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올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105만5035명이다. 1945년 10월 7일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개관한 국립경주박물관은 개관 79년째를 맞이해 관람객 수 100만명이라는 걸림사를 맞게 됐다.

올해 관람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매달 10만명 이상 박물관을 찾았으며 가장 많은 관람 인원이 몰린 이달에는 16만여명이 박물관을 방문했다.

관람객 증가 요인은 △다양한 전시

콘텐츠 구성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6일 문을 연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이미 20만명 이상이 관람해 관람객 수 동원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70주년 특별 전시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 만큼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라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축각 체험물 및 점자 설명문, 경주 석굴암 조각 탐본 음성해설 등도 주목된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전시 품 모형을 만지고 음성해설을 들으며 경주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전시 콘텐츠를 도입한 것 역시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신라미술관에 이어 신라역사관에도 축각체험물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함순섭 관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

아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유

익한 교육, 행사 등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dogh0311@naver.com](mailto:sonsthun@naver.com)

윤혜숙 개인전 '나의 노래' 24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자연의美·작가 꿈 그린 작품 30여점

(재)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참꽃갤러리에서 윤혜숙 작가의 개인전 '나의 노래'를 오는 이달 24일까지 개최한다.

숲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심미적 안목으로 재해석하는 윤혜숙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고 소박한 꿈을 꾸며 느낀 다채로운 감정을 고백하는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혜숙 작가는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3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동시집과 수필집의 삽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중견 화가다. 익숙함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연의 모습을 치유의 숲으로 그려내는 윤혜숙 작가는 삶에서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과 조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작품에 담아낸다.

개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따뜻한 기억을 회상에 불 수 있는 윤혜숙 작가의 전시 '나의 노래'는 군청 내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윤혜숙 작가의 개인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mailto:sonsthun@naver.com)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www.dsar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충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mailto:jangchan@naver.com)

영주시, 국가유산청 공모 6건 선정... 지역 세계유산의 가치 높인다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보존·전승 위한 공동체 관심 견인

영주시가 국가유산청에서 공모한 '2025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세계유산 가치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활용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기획된 사업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적·물적 자

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소수서원 '소수서원 필리아Philia', 부석사 '해시태그 부석사')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순흥벽화고분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 근대역사문화거리 '영주 근대로의 시간여행')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영주향교 '향교야 같이 놀자', 의산서원 '선비꽃이 피었습니다') 총 6건으로 국·도비 1억92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소수

서원 필리아'는 마음 휴양 종합프로그램으로 명상, 선비 치유음식 강의, 서원음악회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은 9년차 사업으로 순흥벽화고분을 중심으로 고분 답사, 벽화고분 미술 체험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남서 시장은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mailto:jhy4430@hanmail.net)

안동문예전당 야외음악회, 12일·19일 무료로 선봬

하모니카·아코디언·기타 등 다양한 악기 활용 동아리 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장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신선한 문화예술 경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역생활에 솔인지원사업 야외음악회를 이달 5일, 12일, 19일 3일에 걸쳐 8개 단체의 공연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지난 5일에는 찾아가는 청춘음악단과 안동예술공연단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찾아가는 청춘음악단'은 안동 지역가수 및 공연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장구, 노래, 색소폰 등 독특하

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안동에 솔공연단'은 안동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민요, 전통무용, 색소폰 등 폭넓은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12일에는 청보리야단법석과 안동아코디언동호회가 공연한다.

'청보리야단법석'은 하모니카 색소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조화로운 하모니로 연주하는 지역생활예술인

단체다.

'안동아코디언동호회'는 6-70대의 시니어 단원들이 아코디언으로 동요, 트로트, 민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단체다.

오는 19일에는 민들레 통기타와 즐거운동행의 차레다. '민들레 통기타'는 4-60대의 회원들로 구성된 기타 동아리이며 '즐거운동행'은 다양한 장르의 7080 음악을 밴드로 연주하며 대중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생활예술단체들은 각자의 색깔과 다채로운 음악으로 1시간 정도의 짧

막 독특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생활예술인지원사업 '야외음악회'는 이달 마무리되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이번 야외음악회 외에도 다양한 지역 생활예술인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전당 누리집(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mailto:oms7227@nate.com)

봉화 어린이박물관 '인기'

민속생활사박물관 방문 교육 사업 눈높이 맞춤 전시물로 이해도 쑥쑥

봉화청량산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민속생활사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참여 기관 공모 사업에 청량산박물관이 선정돼 진행됐다.

대형 버스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한 전시버스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과 체험 콘텐츠를 담아냈으며 '신비한 마법의 방'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인형에 대해 깎아방, 이어방, 찾아방 등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시 내용과 연계해 특별 제작된 교육 키트 '나만의 거정인형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봉화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등 6개 유아 교육 기관의 71명 어린이가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5회차 수업으로 나눠 참여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mailto:jhy4430@hanmail.net)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개강

2024.9.27~11.8(매주 금요일, 18:30) 분황사 경내

추최분황사 주관분황사,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운영위원회
문의 054 742 9922/ 대상 일반시민(무료강좌)

- 09.27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 남동신(서울대학교)
- 10.04 분황사 모전석탑과 신라의 불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장)
- 10.11 신라의 사리신앙과 사리공예 - 김연수(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 10.18 신라명필 김생의 필적을 찾아서 - 박홍국(전 위덕대학교)
- 10.25 신라불교와 보살 - 이주형(서울대학교)
- 11.01 분황사와 신라의 불상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 11.08 분황사에서 듣는 빈센트 반고흐의 삶과 예술 - 이태호(전 명지대학교)

칼럼

바닷속의 악마(下)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2594호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이 대 잠작전이나 기술개발에 소홀했던 건 미스터리 중 미스터리이다. 물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 기술적 능력의 한계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기술에서도 가능한 전술의 개발에 소홀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유보트의 무적시대를 저지한 건 잠수함 탐지 기술이 아니라 대잠전술이었다.

반면에 독일은 독일대로 유보트에 전쟁의 승부를 거는 듯하면서도 노력이 왜곡됐다. 해저전력이 아닌 전함, 구축함 같은 해상전력의 재건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유보트 생산이 계획처럼 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연합군의 대잠전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유보트의 기술개발에도 소홀했는데 일종의 나비효과였다. 연합군이 대잠전술 개발에 소홀했던 것이 엉뚱하게 유보트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됐던 것이다. 이런 게 세상의 아이러니이다.

막상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자 유보트의 활약은 모두의 예상을 넘었다. 대서양을 건너는 수송선들은 유보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신문 기사, 선전영화는 공포영화 수준이었다. 사슴이

나 물소 떼가 이동하다가 늑대나 사자 무리를 만나는 격이었다. 이 맹수들은 보이더라도 하지만 물 밑에서 잠행하는 유보트는 탐지 불가능이었다.

이들에게 걸리면 제물처럼 희생양을 바치고 맹수들의 사냥터를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호위함대가 있었지만 모든 수송선을 호위할 수는 없었다. 호위함대가 있었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니 경호가 쉽지 않았다. 유일한 방법은 최초의 공격이 감행된 후에 유보트가 있다고 짐작되는 것에 몰려들어서 폭뢰를 투여하는 것이었다. 이 공격은 성공 가능성도 낮았고 잠수함을 공격하는 함정이 당할 수도 있었다. 독일은 환호했고 연합군은 절망했다.

◇ 쉽게 얻는 승리는 없다
속수무책, 일방적 승리, 게임체인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한다. 그러나 창과 화살로 무장한 군대와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와의 싸움이 아닌 이상 그런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유보트가 엄청난 전과를 올리던 시절에도 수송선 사냥이 땅에 떨어진 열매 줍듯이 쉬운 건 아니었다. 넓은 바다에서 수송선을 탐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늑대 떼 전술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발견을 해도 유보트는 속도가 너무 느렸고 조류의 방해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어뢰의 명중률은 생각보다 낮았고 어뢰가 떨어지면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뒤늦게 명중률을 높이는 유도어뢰를 개발했지만 명중률이 더 떨어졌다.

유보트 승무원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영화에서는 좁아도 침대에 누워서 자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벽면에 마련된 사병을

위한 설계상의 침대는 4~6개에 불과했다. 침실로 애용된 제일 넓고 쾌적한 공간은 어뢰실이었다.

어뢰를 한 발 소모할 때마다 한두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 어뢰를 다 소모하면 어뢰실은 20명의 장정이 복적거리는 침실로 변했다.

이 좁디좁은 공간을 습기와 더위와 역겨운 악취가 가득 채웠다. 잠수함이 요동하면 번기에 담은 오물이 쏟아지고 폭폭 밀폐된 공간에서 땀냄새, 디젤 냄새가 섞여서 인간이 상상도 못 할 악취가 선내에 가득 찼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겪는 폐소공포증은 사치에 가까웠다. 전투가 벌어지고 폭뢰 공격이 시작되면 압축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한 서술이 불가능하다. 다른 전장에서는 사지에서 빠져나온 생존자가 있지만 한번 침몰한 유보트는 생존자가 없다. 바다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끝이었다. 어떤 일로 침몰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생과 공포를 겪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전쟁사를 보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의 승리를 열망하고 열광한다. 무적의 철갑기병, 무적의 잠수함, 이런 신화들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니 사람과 사회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쉬운 승리는 없다. 쉽게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승리, 일방적인 승리는 더 많은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뉴스1

사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재유행 우려

역대급 기세를 떨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세가 한풀 꺾이기가 싶더니 다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잠해진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뒤늦게 확산하는 데다 그간 겨울에 큰 유행세를 보인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세균성 입원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39주(9월 22~29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1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8명) 대비 약 17배,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 동기(135명)와 비교해서도 약 8.4배에 이르는 수치다.

유행 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초인 36주 1077명에서 37주 111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38주 924명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감소세는 이어지지 않고 39주 다시 1146명으로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한 차례 큰 유행을 겪었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과는 다르게 뒤늦게 역대급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래 동절기에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고 봄철에 두 번째 유행하는 형태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여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원래 겨울에 크게 유행하고 봄에 두 번째 피크가 오는 형태로 지나가는데 몇 년간 이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때 한번 크게 유행하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유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뒤늦게 이런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문종윤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뒤늦은 유행은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문 교수는 최근 발표한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유행 양상’ 논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인한 비약물적 개입 이후 발생이 감소한 많은 호흡기 감염병 중 3년이 넘는 시기의 재등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재유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다른 병원균보다 길어진 이유로 “2019년 후반에서 2020년 초반에 전 세계적인 유행에 의해 일시적인 집단면역이 생긴 뒤 3년이 지나는 동안 약해진 집단면역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느린 세대기 △긴 잠복기 △밀접 접촉을 통한 비교적 낮은 전염률 △안정적인 유전체 등을 꼽았다.

문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역대급 확산을 이어가는데 이어 원래 유행하는 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문 교수도 “코로나19 재등장한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발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예외적으로 큰 유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자 수는 많지만 중증 환자는 별로 없어 대책반은 꾸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에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기고

개인정보보호는 ‘나’ 부터 실천하는 것

이용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해 개인정보라고 한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개인의 재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나’ 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돼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름, 생일 등 단순한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용카드 영수증과 택배 상자의 송장 번호도 반드시 찢어서 버려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 부터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의의식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박 성 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 체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 경 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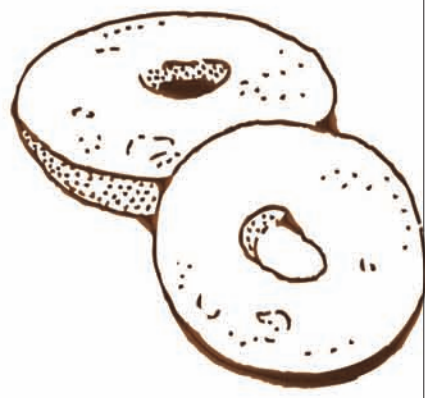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시월愛 마지막 밤 커피&빵 FESTA

월정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빵과 디저트
그리고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추억이 될
잊혀진 계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월정교 잔디공원

10월 26일(토) 13:00~20:00

10월 27일(일) 11:00~18:00

주최 경상투데이 주관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후원  한국수자원연구원(주) 월성원자력본부

